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사본

국무총리 지시 제 18 호 (70-2012) 1975. 11. 20

수신 :

제목 : 대한항공 경영개선 대책

대한항공은 시설확충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세계적으로 손익이 없는 항공회사로 발전되었으나 동사는 그 사업
규모에 비하여 자기자금이 과소하여 재무구조가 불건전하고 최근에 유류
가격 상승, 각사간의 과당경쟁, 승객감소, 국내선 적자운항등으로
자금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한항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 대한항공은 다음과 같이 년차별로 9,000백만원을 유상증자한다.

1975 년	:	4,300백만원
1976 년	:	3,700백만원
1977 년	:	1,000백만원
계		9,000백만원



나. 제 1 차년도 유상증자에 있어서

- 1) 대한항공은 금년도중에 4,300백만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한다.
- 2) 대우주 조종훈은 신주발행분중 최소한 2,000백만원 상당을 자기 책임하에 인수증자한다. 그중 1,000백만원은 금년도내에 증자완료토록 한다.
- 3) 비행신주중 실권주는 1976년도 상반기중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모증자한다.
- 4) 정부는 전항의 실권주 공모를 위하여 관계기관은 행, 증권당국으로 인수단을 구성하는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취한다.
- 5) 대한항공은 증자조치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정이익 배당 보장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제 2 차년도 유상증자에 있어서

- 1) 대한항공은 1976년도중에 3,700백만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한다.

2) 재무부는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1976년도 상반기중에 대한항공에 대하여 2,200백만원을 출자하도록 하고 이를 1976년도 동행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3) 재무부는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전항의 출자지원을 1976. 2. 28 이전에 대한항공에 일단 출자한 후 동 용자금으로써 출자에 충당토록 조치한다.

4)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는 한국산업은행이 전항의 출자지원을 확보 할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대한항공은 제 2차년도 유상증자 계획본중 잔여 1,500백만원 상당을 동사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토록 한다.

라. 1977년도 이후의 유상증자는 동사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한다.

2. 대한항공의 부족자금 지원을 위하여

가. 재무부는 관계 기관은행으로 하여금 금년도에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일반대출금은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도록 조치한다.

한일은행	:	500백만원
제일은행	:	200백만원
서울은행	:	450백만원
계		1,150백만원

나. 재무부는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한항공에 대한 동행
외화자원 운영자금 대출금 3,541백만원중 금년도에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2,839백만원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도록
조치한다.

다. 재무부는 관계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금년도내에 대한항공에
대하여 일반자금 3,000백만원을 융자지원토록 한다.

3. 경제기획원은 대한항공의 국내선 운임을 국내선 운항부문에서
결손이 나지 않는 선으로 인상 조정한다.

4. 재무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의 중요산업 범위에
항공사업을 추가하도록 한다.

5. 재무부는 여객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현실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한다.

끝.

수신처: 경제기획원 25관, 재무부 25관
대한항공 사령관, 경제제1국, 비서관

국 무 총 리